

咸陽 學士樓 시에 나타난 崔致遠의 形狀*

— 學士樓의 效用을 兼하여 —

李九義**

Ⅱ 차례 Ⅱ

- I. 머리말
- II. 學士樓 吟詠詩의 實際
- III. 시에 나타난 崔孤雲의 모습
- IV. 後代人의 學士樓 活用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學士樓의 吟詠詩에 나타난 崔孤雲의 모습과 이 학사루의 후대 활용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시의 제목에 ‘학사루’라는 말이 들어간 시가 24제 30 수 전하고 있다. 시의 내용에 학사 또는 학사루라는 말이 들어간 시가 6題 7首, 學士라는 말이 들어간 시가 1題 1首이다. 김종직의 시에는 제목과 내용 모두 학사루라는 말이 들어가기도 하였다.

시에 나타난 최고운의 모습은, 첫째 학자로서의 최고운이다. 그가 文翰을 담당하는 한림학사의 직책을 역임하였기에 후대 사람들이 그를 追頌하여 최고운이 학자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 儒仙으로서의 최고운이다. 그가 중국에서 귀국할 때 顧雲이 그에게 『儒仙歌』를 지어 준 것을 상기하여 최고운을 유선으로 불렀다. 셋째 詩仙 또는 詞仙으로서의 최고운이다. 최고운이 선비이면서 시를 잘 지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불렀다. 넷째 神仙으로서의 최고운이다. 고려 시대 이인로가 그의 『파한집』에서 최고운이 신선이 되어 구름타고 갔다는 말을 상기하여 후대 시인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다.

* 논문은 2015년도 경북대학교 복원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後代人の學士樓 活用은, 첫째 吟詠處로서의 학사루이다. 최고운이 직접 그곳에 올라가서 시를 짓고 휴식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최고운을 推仰하는 후대 사람들이 이곳에서 시를 지어 시인 자신의 회포를 묘사하였다. 둘째 講學處로서의 학사루이다. 학사루의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강학하기에 적합하였다. 이 고을을 다스렸던 최고운의 흔적이 담긴 곳에서 강학하는 것이 대단히 의의가 있었다. 셋째 公務處로서의 학사루이다. 임진왜란 때 판군과 의병이 招諭文을 작성할 때 이곳이 활용되었다. 이 누각이 관아 옆에 있어 이곳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수월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寄宿處로서의 학사루이다.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寄宿하려 한 것은 그만큼 학사루의 공간이 기숙하기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避難處로서의 학사루이다. 학사루가 2층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홍수를 피하기에 적합하였다.

주제어 : 學士樓, 咸陽, 學者, 吟詠, 活用, 推仰

I. 머리말

咸陽에는 學士樓¹⁾가 있다. 함양의 신라시대 때 이름은 天嶺郡이다. 최치원이 중국에서 돌아와 眞聖女王에게 時務策 10조를 올렸다. 왕은 그의

1) 지금까지 학사루에 관한 글이 세 편 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①김윤수, 「함양 학사루에서 일어난 사건」(『선비문화』13, 경상대 남명학연구원, 2008. pp.126-133)이다. 이 글은 점필재가 학사루에 걸린 유자광의 시판을 떼어내어 무오사화가 일어났다는 것과 趙宗道가 임진왜란 때 학사루에서 격문을 지은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나온 것이 ②명남재, 「함양상림과 학사루」(『하천과문화』9권4호, 인간과 하천4, 2013. pp.44-50)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上林 옆을 흐르는 渭川과 森林, 학사루에 대하여 생태학적 면에서 고찰한 글이다. ①과 ②는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 ③정순희, 「不遇와 고뇌, 떠남의 현재성-박지원의 「함양학사루기」 읽기」(『한국언어문학』96, 한국언어문학회, 2016. pp.123-142)이다. 이 논문은 副題에서 알 수 있듯이 박지원의 「學士樓重修記」를 단락별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논하였다. 따라서 학사루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아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글 모두 학사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의견을 받아들였으나 신하들의 반발로 그 시무책이 수용되지 못하였다.²⁾

함양에는 최고운의 유적지가 몇 곳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 上林이다. 상림은 그가 천령군수를 지낼 때 직접 조성한 그의 유적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학사루이다. 그리고 1906년 고을 유지들이 최고운을 추모하여 세운 慕賢亭이 있다. 이 모현정을 1972년 重修하면서 思雲亭이라 그 이름을 바꾸었다.

여러 문헌을 종합하여 보면, 890년 그의 나이 34살 되던 해 太山郡(현, 全北 泰仁), 37살 되던 해 富城郡(현, 忠南 瑞山), 41살 되던 해 防虜太監 兼 天嶺郡(현, 慶南 咸陽) 太守로 임명되어 그 고을을 다스렸다. 이 때 그가 官衙 옆에 있던 누각에 오르곤 하였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가 오르내렸던 누각이라 하여 ‘학사루’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가 그의 나이 28살 되던 해(884) 당나라에서 출발하여 그의 나이 29살 되던 해(885) 3월 신라에 도착하였다. 그 때 당시 신라의 임금이었던 헌강왕이 그에게 侍讀 兼 翰林 學士 守兵部侍郎 知瑞書監이라는 벼슬을 내렸다. 이 學士樓는 그가 翰林 學士를 역임하였기 때문에 한림학사를 줄여 學士라 하고 그 뒤에 樓자를 붙여서 생겨난 이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누각 가운데 가장 오래된 누각이 이 학사루이다. 그러나 학사루는 두 차례 화재로 燒失되었다. 모두 倭寇에 의해서이다. 1380년과 1592년에 일어난 일이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학사루가 거의 100년이 지나 중건되었다. 燕巖 朴趾源의 『咸陽 學士樓記³⁾』에서 그러한 정황이 나타난다.

본고는 『韓國文集叢刊』과 기타 문헌에 남아 있는 學士樓를 素材 또는

2) 최치원의 나이 38살 되던 해(894) 2월 시무책 10여조를 올리니 왕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를 阿飡에 임명하였다.(拙著, 『崔孤雲 文學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2005, pp.658-659 參照).

3) 朴趾源, 『燕巖集』卷1(『韓國文集叢刊』252, p.24).

題材로 하여 읊거나 지은 詩文을 바탕으로 최고운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한다. 이어서 이 학사루를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이차 목표로 한다. 본고의 진행 방법은 여러 비평 방법을 종합한 人文主義 비평 방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Ⅱ. 學士樓 吟詠詩의 實際

1. 「學士樓」라는 제목 붙은 시

〈도표1〉

순번	작 자	제 목	형 식	작품수	출 전
1	尹 祥	「次咸陽學士樓題」	7언절구	1	『別洞集』卷1
2	金宗直	「學士樓下梅花始開病中吟得二首」	7언절구	2	『佔畢齋集』卷7
3	金宗直	「學士樓池上躑躅盡開」	7언율시	1	『佔畢齋集』卷8
4	金宗直	「學士樓下有梅一株雖半枯朽而枝梢猶老硬每歲開花最早余辛卯春到郡見而愛之 …」	7언장율22구	1	
5	盧 禎 (1518~1578)	「學士樓韻」	7언율시	1	『玉溪集』卷1
6	盧 禎	「學士樓近體」	7언율시	2	『玉溪集』卷1
7	盧 禎	「學士樓」	7언절구	1	『玉溪集』卷1
8	盧 禎	「學士樓近體」	7언율시	2	『玉溪集』卷1
9	尹根壽	「次學士樓韻」	7언절구	2	『月汀集』卷2
10	尹根壽	「次學士樓韻」	7언율시	2	『月汀集』卷3
11	吳 翹	「學士樓」	7언절구	1	『天坡集』卷3
12	趙龜命	「學士樓次登樓賦韻」	6언42구, 4언4구	1	『東谿集』卷12
13	李德懋	「咸陽學士樓 得二聯」	7언고시	1	『靑莊館全書』 卷69
14	申佐模	「學士樓與紫崖共賦」	7언율시	2	『澹人集』卷8
15	鄭必達	「學士樓」	7언율시	1	『八松集』卷8

16	沈 攸	『次道明咸陽學士樓韻』	7언절구	1	『梧灘集』卷4
17	鄭鎭商	『學士樓』	7언절구	1	『退漁堂遺稿』 권3
18	鄭基安	『學士樓 次板上韻』	7언율시	1	『晚慕遺稿』卷1
19	趙迨祥	『學士樓』	7언율시	1	『咸陽樓亭誌』 96쪽
20	李皿+訪輔	『學士樓』	7언율시	1	『咸陽樓亭誌』 97쪽
21	洪禹采	『學士樓』	7언율시	1	『咸陽樓亭誌』 97~98쪽
22	辛致復	『學士樓』	7언율시	1	『咸陽樓亭誌』 98쪽
23	洪禹傳	『學士樓』	7언율시	1	『咸陽樓亭誌』 98쪽
24	未詳	『學士樓柱聯』	7언율시	1	『咸陽樓亭誌』 98~99쪽
총계		24題		30首	

2. 내용에 ‘學士樓’라는 말이 들어 간 시

〈도표2〉

순번	작 자	제 목	형 식	작품수	출 전
1	徐居正	『次曹咸陽偉韻』	7언율시	3	『四佳詩集』卷51
2	金宗直	『七夕 邀春塘』	7언절구	1	『佔畢齋詩集』卷7
3	俞好仁	『寄呈郡守曹君大虛』	7언절구(小詩)	11	『滯谿集』卷2
4	俞好仁	『咸陽濫滯竹枝曲十絶』	7언절구(小詩)	10	『滯谿集』卷2
5	俞好仁	『次佔畢齋韻』	7언절구(小詩)	6	『滯谿集』卷2
총계		5題		31首	

〈도표1〉과 〈도표2〉를 보면 제목과 작자의 수는 차이가 있지만 실제 작품 수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 다른 누정 시에서도 그렇겠지만 句節 안에 그 대상의 제목을 넣어 읊은 경우가 많다. 다른 누정 吟詠詩와 확실히 다

른 것은 위의 시들이 모두 7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學士樓 시를 지을 당시 시인들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실제로 임진왜란이나 기타 국난이 있었을 때 이 학사루 시를 지은 경우가 거의 없다. 이 학사루를 제재나 소재로 한 시를 지었을 당시 시인들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7언 시는 5언 시에 비하여 호흡이 길면서 부드럽다. 마음이 조급하면 이 형식의 시를 지을 수 없다.

또 이 학사루 吟詠詩에서 보면, 絶句보다는 律詩가 많다. 근체시에서 율시가 가장 시의 표본이다. 그것도 7언율시가 근체시의 모범이 된다. 이를 미루어 보면 학사루 음영시를 지은 사람들이 正道를 지키려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고을을 다스렸던 崔孤雲에 대한 예우인지도 모른다. 학사루가 개인이 지은 것이 아니라 관아에서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 기관은 엄격한 규율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시의 형식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도표1>에서 19부터 24까지의 시는 『韓國文集叢刊』에 실리지 않은 것들이다. 『咸陽樓亭誌⁴⁾』에 실려 있는데, 그 출전이 명확하지 않다.<도표 2>를 보면 31수의 시 가운데 뇌계 유호인의 시가 28수이다. 學士樓라는 말이 뇌계의 시 가운데 3수에 들어 있다.⁵⁾ 學士라는 말은 1수의 시에 들어 있다. 儒仙이라는 말이 2수의 시에 들어 있다.

4) 咸陽文化院 刊, 『咸陽樓亭誌』(上), 大邱: 大寶社, 2001. 10, pp.96~99 參照.

5) 「寄呈郡守曹君大虛」 제목의 시 11중 其五, 「咸陽濫漚竹枝曲十絶」 제목의 10수 가운데 其一, 「次佔畢齋韻」이라는 시 6수 가운데 其一 등이다. 儒仙이라는 말이 들어간 시가 「寄呈郡守曹君大虛」其五, 「咸陽濫漚竹枝曲十絶」其一一이며, 學士라는 말이 들어간 시는 「次佔畢齋韻」其六이다. 따라서 빈도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제목과 내용에 학사루라는 말이 들어간 시는 김종직의 「學士樓下梅花始開病中吟得二首」(其一)이다.

Ⅲ. 시에 나타난 崔孤雲의 모습



〈 2016년 8월 현재 학사루의 모습〉

1. 學者로서의 崔孤雲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학사루라는 누각의 이름을 최고운의 관직 이름에서 따왔다. 그것도 翰林學士이니 文翰을 담당하는 관리이다. 학사루를 제제로 하여 읍은 시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別洞 尹祥(1373~1455)의 『함양 학사루에 붙인 시에 차운함(次咸陽學士樓題)⁶⁾』이다. 그

6) 尹祥, 『別洞集』권1(『韓國文集叢刊』8, p.265).

이 시의 제목으로 보아, 別洞보다 먼저 지은 사람의 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또 시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시는 그가 慶尙道觀察使를 역임할 때 이 지역을 巡視하면서 지은 것 같다. 이 외에 이 학사루 시를 지은 사람은 첫째 이 지역 출신이거나, 둘째 이곳이나 이곳 주위에서 벼슬하였거나, 셋째 이 지역을 관리하는 높은 관청의 우두머리, 곧 경상도관찰사를 지냈거나, 넷째 이 지역에 머물렀던 사람, 곧 임진왜란 때 關군이거나 아니면 의병이었던 사람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지역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 이곳을 유람하면서 이 學士樓 吟詠詩를 지은 경우가 거의 없다. 이 점이 함천 가야산 주위의 최고운 유적지에 대한 음영시와 다른 점이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함양은 교통이 불편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었다는 점이다. 그것

내용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頭流山迫白雲間 두류산이 구름 사이에 다다랐는데,
 傍麓經營問幾官 어느 관리가 산 고을 다스렸던가.
 最是許州鍾秀氣 이 고을에 가장 빼어난 기운 모여,
 稟生人傑滿朝端 이를 품고 태어난 인걸 조정에 가득.

이 시의 형식은 7언 절구이다. 起句와 承句에서는 시인이 비록 학사루에 붙은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지었지만, 언뜻 보면 시에는 최고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기구에서는 함양의 지리적 배경을 읊었다. 함양은 두류산, 곧 지리산 곁에 있다. 이 고을에서 보면 구름 속에 우뚝한 지리산이 보인다. 그런데 자아⁷⁾가 이 산기슭 고을을 누가 다스렸는가 하고 묻는다. 그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바로 신라 시대 때 최고운이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구와 결구에서 최고운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 자아가 함양에 가장 빼어난 기운이 모였다고 하였다. 그 빼어난 기운이 모이게 된 것은 신라 시대 때 최고운이 이 고을을 다스렸기 때문이다. 최고운이 咸陽 출신은 아니다. 學士의 遺香이 후대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 결구에서 보면, 자아가 두류산의 기운이 이 고을에 모여 우수한 인재들이 태어났다고 하였다. 이들이 또 대과에 급제하여 조정에 가득하다고 한다. 실제로 함양은 조선시대에 경상남도에서 가장 인재가 많이 난 고을이다. 이 고을은 由緒가 깊다. 그 유서의 시작이 최고운이다. 최고운이 이 고을을 다스릴 때 조성하였다는 上林⁸⁾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 상림은 조

은 이 지역이 남쪽을 제외하고 모두 산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이다.

7) 여기서 자아는 抒情的의 自我(Persona)를 줄여 쓴 말이다. 이하도 이와 같다.

8) 上林은 『東國輿地勝覽』이나 『天嶺邑誌』, 『咸陽邑誌』 등에는 大館林으로 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권31이나 『천령읍지』에, “大館林은 潘谿 동쪽 언덕에 있다.”고 하

선시대까지 大館林으로 불리다가 일제 강점기에 상림과 下林으로 나뉘어 불렀다 한다.⁹⁾

2. 儒仙으로서의 崔孤雲

다음의 俞好仁(1445~1494)의 『함양의 남계·뇌계 죽지곡 절구 십수(咸陽濫漣竹枝曲十絶)¹⁰⁾』가운데 첫 번째 시를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學士樓頭明月輝 학사루 머리에 밝은 달이 휘영청,
儒仙一去鶴仍歸 유선이 떠난 뒤 학도 돌아갔다네.
鷄林黃葉千年後 신라가 망한 지 천년이 지난 뒤,
誰認當時丁令威 그 누가 당시의 정령위 알아보리.

起句에서 보면, 시간적으로는 밤이다. 학사루 머리에 달이 휘영청 밝다고 하였으니 보름이거나 보름을 전후한 날이다. 달은 밝지만 차가운 느낌

고 있다. 『함양읍지』에는, “대관림은 함양부 서일리 뇌계 가에 있다. 뇌계는 함양부 서일리에 있는데 근원은 白雲山에서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沙斤驛에 이르러 남계와 합류한다. 유호인이 뇌계 가에 살았다.”고 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 문헌에 실린 상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궁중의 동산으로 上林苑을 말한다.(『古文眞寶』前集, 李白의 『蘇武』라는 시에 “白雁上林飛, 空傳一書札.”이라는 구절이 있다.) ②上林苑은 秦·漢 때 長安에 있었던 황제의 정원으로 대궐을 뜻한다. ③한나라 때 사마상여가 상림원에서 지은 「상림부」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상림부가 문장이 훌륭하기로 유명하다.(蕭統, 『文選』의 司馬相如, 「上林賦」), ④秦나라 때부터 있던 동산이었는데 漢武帝가 그 규모를 크게 확장하였다. 천자가 군신을 거느리고 사냥을 즐기던 곳(司馬相如, 「上林賦」)이다. ⑤중국의 한 지방 이름이다.(『古文眞寶』後集에 陳無己의 「上林秀州書」라는 편지가 있다.)

9) 명남재, 앞의 글, p.45 참조.

10) 俞好仁, 『濫谿集』卷2(『韓國文集叢刊』15, p.108).

이 있다. 싸늘한 달빛을 먼저 묘사한 것은 그만큼 자아의 마음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뜻한다.

承句에서는 儒仙이 돌아갔다고 하였다. 여기서 유선은 말할 것도 없이 최고운을 가리킨다. 왜 유선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 해답은, 첫째 최고운이 12살에 당나라에 건너가서 생활하다가 28살 되던 해 신라로 귀국하려 하자 그의 막역한 친구였던 顧雲이 그에게 『儒仙歌』를 지어 주었다. “열두 살 때 배 타고 바다 건너와, 문장으로 중국을 감동시켰다네(十二乘船過海來, 文章感動中華國).”¹¹⁾라고 하였다. 둘째 儒仙은 글을 아주 잘하는 선비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杜甫를 詩聖이라 하고 李白을 詩仙이라 하는 것과 서로 통한다. ‘仙’자가 들어갔으니 현실의 삶을 초월한 경지에 있는 사람, 곧 超人文精神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뜻한다.

轉句와 結句를 보면, 자아가 살았던 시점에서 신라가 망한 때까지의 시간적 거리가 천 년이라고 하였다. 그 거리가 정확하게는 700년 남짓하다. 이를 반올림하면 천 년이 된다. 이는 시간적으로 그만큼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말이다. 천 년이 지난 뒤에 최고운이 나타난들 그 누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자아가 반문한다. 결국에서는 최고운에 대한 언급이 없다. 丁令威¹²⁾를 用事하여 최고운과 대치하고 있다. 정령위가 천 년 뒤에 고향에 나타난 것이나 최고운이 천 년 뒤에 함양 학사루 앞에 나타난 것을 동일

11) 李奎報, 『東國李相國集』卷22, 『당서(唐書)에 최치원(崔致遠)의 열전(列傳)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의론(唐書不立崔致遠列傳議)』, 『韓國文集叢刊』1, p.519).

12) 遼東 사람 丁令威가 신선이 되고 나서 천 년 만에 학으로 변해 다시 고향을 찾아와 서는 요동 성문의 華表柱 위에 내려앉았는데, 소년 하나가 활을 쏘려고 하자 허공으로 날아올라 배회하면서 “옛날 정령위가 한 마리 새가 되어, 집 떠난 지 천 년 만에 이제 막 돌아왔소. 성곽은 예와 같은데 사람은 모두 바뀌었나니, 신선술 안 배우고 무덤만 이리 즐비한고(有鳥有鳥丁令威, 去家千年今始歸. 城郭如故人民非, 何不學仙冢纍纍.)”(『搜神後記』卷1)라고 탄식하고는 사라졌다는 전설이 전한다.

시하고 있다.

潘谿의 『군수 조태허 군에게 부쳐쭈(寄呈郡守曹君 大虛)¹³⁾』이라는 시에서도 뇌계가 최고운을 儒仙으로 불렀다. 그 11수 가운데 다섯 번째 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儒仙一去杳芳塵 유선이 한 번 떠난 뒤 행적 묘연하니,
千古分留物色新 천고에 남은 자취 물색이 새롭다네.
學士樓名誰管得 학사루란 이름 그 누가 맡아 얻었나,
玉堂前後兩詞臣 전후 옥당에 두 분의 사신(詞臣)일세.

위의 시 起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아, 곧 뇌계가 최고운을 儒仙이라 불렀다. 뇌계가 그렇게 부른 것은 최고운의 삶을 동경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최고운의 자취가 서려 있는 潘谿 가에서 태어났다. 뇌계의 근원은 지리산이다. 뇌계가 지리산의 한 줄기인 白雲山에서 發源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沙斤驛에서 남계와 합류한다고 하고 있다.¹⁴⁾ 그의 호는 그가 태어난 시내 이름에서 따왔다. 위의 시에서 알 수 있듯이 뇌계가 최고운을 마음속으로 추종하고 있다. 자아 자신도 최고운과 같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 희망은 곧 최고운의 학문에 대한 성취이다. 자아의 머릿속에는 최고운을 신선보다는 선비 또는 儒者라 한 것이 당연하다. 최고운을 유선이라 한 것이 이에 대한 증거이다. 뇌계, 그가 태어나 자란 곳이 함양이기 때문에 그가 최고운에 대한 느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절실하였다.

오랜 옛날 최고운이 함양 수령을 하면서 치적을 남겼듯이 뇌계의 스승인 점필재 김종직도 이곳 수령을 지내면서 많은 치적을 남겼다. 점필재가

13) 俞好仁, 『潘谿集』卷2(『韓國文集叢刊』15, p.97).

14) 앞의 주6) 참조.

함양에서 길러낸 제자들이 23명이다. 그의 제자 72명 가운데 함양 출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뇌계와 藍溪 表沿洙이 이곳에서 점필재를 만났다. 뇌계가 자신의 고향을 잊지 않았다면, 남계는 20대 초반에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하였다. 50이 넘은 남계가 서울에서 자신의 처가 곳인 尙州 咸昌으로 거처를 옮겨 54살에 죽었다. 남계가 뇌계만큼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일찍 아버이를 여의고 고향을 떠났기 때문이다.

3. 詩仙 또는 詞仙 崔孤雲

최고운의 다른 표현이 詩仙 또는 詞仙이다. 詩字와 詞字가 들어갔으니 시를 잘 짓고 글을 잘하는 선비의 의미이다. 이도 위의 『儒仙歌』에서 그 연원이 있다. 최고운이 어린 나이에 일찍 문장으로 중국을 감동시켰다는 말에서 詩仙 또는 詞仙이라 불렀다. 月汀 尹根壽(1537~1616)의 『학사루 시에 차운함(次學士樓韻)¹⁵⁾』이라는 7언절구(七言絶句) 시 두 수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風流當日兩詩仙 그 당시에 풍류 즐긴 두 시선께서,
一去遺蹤已杳然 떠나신 뒤 남긴 자취 이미 아득해.
樓畔梅花開又落 누각 곁의 매화는 피고 또 지는데,
吟魂尙在北山巔 시 읊은 혼 아직 북산에 계시려나.

月汀이 1570년대 慶尙監司를 역임하였을 때 이 시를 지은 것 같다. 자

15) 尹根壽, 『月汀集』卷2(『韓國文集叢刊』47, 197쪽). 두 번째 시는 다음과 같다.

山容如洗月輪明 씻은 듯한 산 모습 달빛이 밝은데,
文筆峯前句未成 문필봉 앞에서 시를 짓지 못하겠네.
十二曲欄人寂寂 열두 굽이 난간에 인적은 고요한데,
滿天風露酒初醒 하늘 가득 이슬 바람에 술 막 깨네.

아가 起句에서 당시 풍류를 즐기던 두 시선이라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當時는 언제이며 風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시선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물음부터 해결하여야 한다. 두 詩仙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학사루의 주인인 최고운이다. 또 한 사람은 학사루의 매화를 읊은 佔畢齋 金宗直이다. 轉句에서 그러한 정황을 알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함양 고을의 수령을 지냈다. 첫 번째 물음의 當時는 최고운과 점필재가 살아서 함양고을 수령을 할 때이다.

자아가 말한 風流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술 마시고 시 짓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말하는가? 물론 이러한 행위도 풍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가 말한 풍류는 먼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遺風餘流를 말한다. 우리 문화 또는 전통의 계승이다. 月汀의 「학사루 시에 차운함(次學士樓韻)」¹⁶⁾이라는 시 두 수 가운데 두 번째 시를

16) 尹根壽, 『月汀集』卷3(『韓國文集叢刊』47, p.216). 윤근수의 첫 번째 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危途歷盡石稜稜	뽕죽한 바위 가파른 길을 지나고 나서,
林外高樓客裏憑	숲 너머 높은 누각에 나그네 기대네.
風物謾催千古淚	풍경은 부질없이 천고 눈물 재촉하고,
官衙空愧一條水	직함은 그저 한 줄기 얼음에 부끄러워.
黃綃幾想揮毫手	몇 번이나 지방관으로 휘호하려 했나,
白髮難尋繫日繩	백발에 해를 묶어둔 끈 찾기 어렵네.
欲寫羈愁知有處	나그네 시름 묘사하기 적당한 곳 있어,
四山如玉水如綾	사방의 산은 옥 같고 물은 비단 같네.

이 시의 韻字가 점필재 김종직(金宗直)의 「군청(郡廳)에서 바로 지음(郡齋卽事)」(『점필재시집』권7)의 韻字와 일치한다.

頭流秋氣日稜稜	두류산 가을 기운 나날이 무르익어 가는데,
曲檻疎櫺却懶憑	굽은 난간 격자창 앞에 할 일없이 기대었네.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坐來方丈暮雲收	절간에 앉아 있으니 저녁 구름 걷히고,
山翠嵐光映一樓	푸른 산 아지랑이 누각에 어른거리네.
陳迹十年渾似夢	십 년 묵은 자취는 온통 꿈만 같은데,
雕欄五月爽生秋	오월에도 난간은 시원하기가 가을 같네.
詞仙秀句追黃鶴	사선의 빼어난 시구 황학루에 버금가고,
使者嚴程向碧油	사신은 군막을 향하여 바빠 길을 가네.
滿地兵塵無處避	땅 가득한 전쟁 먼지 피할 곳이 없으니,
層霄安得控蒼虬	푸른 소나무 부여잡고 하늘에 오르리오.

이 시의 韻字가 점필재 김종직의 「맑은 제운루(齊雲樓快晴)¹⁷⁾」 시의 운과 일치한다. 당시 점필재의 이 두 편의 시가 학사루에 걸려 있었던 것으

牆影半隄三畝竹	담 그림자는 세 이랑 대를 절반이나 덮었고,
樓陰全護一池水	누대 그늘은 한 못의 얼음 완전히 가리었네.
使家下令眞流水	관청에서 내리는 명령이 흐르는 물과 같은데,
徭戶藏姦若亂繩	부역 기피의 간악함은 형클어진 노끈 같구려.
吏散客歸欹枕睡	아전과 손들 돌아간 뒤에 베개 베고 자는데,
夢魂猶自臥青綾	꿈속에선 아직도 청룡(靑綾) 속에 누워 있네.

17) 점필재의 「맑은 제운루(齊雲樓快晴)」(6월16일) 시는 다음과 같다.

雨脚看看取次收	빗발은 어느덧 점차 걷히어 가는데,
輕雷猶自殷高樓	가벼운 천둥 아직도 누각 울리누나.
雲歸洞穴簾旌暮	구름이 골에 몰리니 주렴이 어둡고,
風颭池塘枕簟秋	바람뭇 위로 부니 자리가 서늘하네.
菡萏香中蛙閣閣	연꽃 향기 속 개구리 소리 개골개골,
鷺○影外稻油油	해오라기 그림자밖엔 벼가 번들번들.
憑欄更向頭流望	난간에 기대 다시 두류산 바라보니,
千丈峯巒湧玉虬	천 길 봉우리 옥룡이 솟은 듯하구나. (金宗直, 『佔畢齋詩集』卷10)

月汀이 차운한 시가 바로 佔畢齋의 위의 두 수의 시이다. 따라서 점필재의 두 수의 시가 학사루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로 보인다. 위 시에서 우리는 頸聯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구절에서 詩仙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은 학사루에 題詩가 걸린 점필재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선은 당나라 시인인 李白을 가리킨다. 자아가 학사루의 시를 당나라 최호의 黃鶴樓 시에 견주었다. 황학루는 중국 湖北省 武漢에 있는 누각이다. 唐나라 때 崔顥가 이곳에서 지은 「황학루에 올라(登黃鶴樓)」가 시의 제목이다. 자아가 생각하기로 점필재의 시가 최호의 시 못지않다는 뜻이다. 최호(崔顥)에 비긴 사람이 점필재뿐인가? 그렇지 않다. 최호에 견주고 시선으로 지칭된 사람이 또 있다. 그는 다음 아닌 최고운이다. 澹人 申佐模(1799~1877)가 지은 「학사루에서 자애와 함께 지음(學士樓與紫崖共賦)¹⁸⁾」이라는 시 두 수 가운데 첫 번째 시를 보면 그러한 정황을 알 수 있다.

風風雨雨打車簾	비바람 몰아쳐 수레주렴 두드리고,
看盡紅流又白鹽	홍류와 백염 ¹⁹⁾ 을 다 둘러보았다네.
石氣醒來還復醉	석기가 깨었다가 다시금 취하니,
泉聲貪着未爲廉	탐욕에 샘물소리 나도 청렴하지 못해.
文章歷落餘青眼	문장은 못하지만 반가움만은 남아,
故舊逢迎半皓髯	옛 친구 만나니 수염 반은 세었네.
黃鶴樓中人不見	황학루 가운데 사람 보이지 않는데,
更將餘句禿毫拈	다시금 무딘 붓으로 시구를 더하네.

담인 신좌모의 벗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紫崖가 누구의 자인지 구체적

18) 申佐模, 『澹人集』卷8, [嶠南紀行], 「學士樓」(『韓國文集叢刊』309, p.368).

19) 『서경』 「說命」下에 高宗이 傅說에게 “너는 짐의 뜻을 가르쳐서 만약 술과 단술을 만들거든 네가 누룩과 엿기름이 되며, 만약 간을 맞춘 국을 만들거든 네가 소금과 매실이 되어야 한다. [爾惟訓于朕志, 若作酒醴 爾惟麴蘖 若作和羹 爾惟鹽梅]”라고 하였다.

으로 알 수 없다. 위 시의 尾聯에서, 黃鶴樓는 學士樓를 가리킨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서 사람은 최고운을 가리킨다. 위의 시에서는 최고운과 점필재가 당나라 崔顥만큼 시를 잘 지었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 아래 시는 최고운이 최호만큼 시를 잘 지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위의 시에서 詩仙은 점필재만이 아니라 최고운도 가리킨다.

4. 神仙으로서의 崔孤雲

점필재 金宗直의 『학사루 아래 매화가 처음 피었으므로 병중에 두 수를 읊음(學士樓下梅花始開花病中吟得二首)²⁰⁾』이라는 七言絶句 두 수 가운데 그 첫 번째 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學士樓前獨立仙 학사루 앞에 홀로 서 있는 신선이시여,
相逢一笑故依然 서로 만나 한번 웃으니 예전 그대로일세.
肩輿欲過還攀慰 견여 타고 지나려다 다시 잡고 위로하니,
今歲春風太劇顛 올해는 봄바람이 너무나 세차게 부는구나.

起句에서 자아가 학사루 앞에 서 있는 신선이라 하였다. 여기서 신선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금방 알 수 있다. 학사루라는 말이 앞에 있으니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운을 가리킨다. 자아가 최고운을 보았다, 본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承句에 가면 자아가 신선, 곧 최고운을 만나니 그가 웃는다. 그 웃는 모습이 천 년 전의 최고운의 모습과 같다. 실제로 그가 천 년 전의 최고운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자아가 현실감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읊었다.

20) 金宗直, 『佔畢齋詩集』卷7(『韓國文集叢刊』12, p.261).

轉句에 가면, 자아가 肩輿, 곧 가마 타고 지나려다가 다시 잡고 위로한다. 이 위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최고운이 자아를 위로하는지, 자아가 최고운을 위로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起句에서 그 해답이 나와 있다. 최고운이 학사루 앞에 서 있다. 따라서 가마 타고 지나가려는 사람이 자아이다. 자아가 신선인 최고운을 만나 지나가려 하지만 차마 그냥가지 못한다. 그만큼 미련이 남아 있다.

결구에 가면, 자아가 올해는 봄바람이 세차게 분다고 하였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학사루 앞에 서 있는 매화가 이제 피기 시작한다. 이른 봄이니 날씨가 아직 춥다. 그동안 잠자고 있던 나무뿌리를 일깨우기 위하여 바람이 세차게 분다.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 현상이다. 이른 봄이라 자아 자신이 춥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봄바람이 세게 분다고 하였다.

天坡 吳翻(1592-1634)이 「함양의 영각²¹⁾」에 받들어 부침(寄奉咸陽鈴閣²²⁾)과 「학사루(學士樓)」라는 시를 지었다. 그의 「학사루²³⁾」시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21) 鈴閣: 한림원 혹은 장수나 지방 장관이 집무하는 곳을 말한다. 여기서는 함양군수의 관소를 가리킨다.

22) 그의 「寄奉咸陽鈴閣」시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見說潘溪上 들리는 말에 뇌계(潘溪) 가에,
 千年學士樓 천년이나 된 학사루가 있다네.
 風簷遺暑濕 처마 바람엔 여름 습기 남았고,
 雲檻壓頭流 주운의 난간 두류산을 누르네.
 野暗村村柳 어두운 들엔 버들이 촘촘하고,
 沙明點點鷗 흰 백사장엔 여기저기 갈매기.
 秋來欲乘輿 가을이 와서 흥을 타려하여도,
 江漢有歸舟 한강엔 돌아가는 배 있으려나.

(吳翻, 『天坡集』卷1, 『韓國文集叢刊』95, pp.10-11)

23) 吳翻, 『天坡集』卷3(『韓國文集叢刊』95, p.83).

新羅學士玉京仙 신라의 학사이신 백옥경의 신선이시여,
 一片浮雲去杳然 한조각 뜬 구름 같이 행적이 묘연하네.
 方丈至今樓百尺 방장의 누각이 지금도 백척이나 되는데,
 月明笙鶴曲闌邊 밝은 달밤 굽은 난간에 생학 소리 들려.

起句에서 보면 자아가 신라의 학사인 최고운을 白玉京의 신선이라 하였다. 백옥경은 道家에서 말하는 天帝의 都城이다. 笙鶴은 신선이 학을 타고 생황을 연주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仙鶴을 뜻한다.

학사루 음영시의 유형을 대략 알아보았다. 이 학사루 음영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학자 또는 시인으로 최고운을 읊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첫째 최고운이 중국에서 건너와서 자신의 포부를 펼치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아직 속세를 등지기 전이라는 점이다. 그가 관리로서 임무를 수행한 곳이 天嶺, 곧 咸陽이다. 그가 조성한 상림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上林은 최고운의 유적 가운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간이다. 둘째 그의 문학에 대한 명성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당나라에서 신라에 귀국한 뒤 翰林學士라는 말이 들어가는 관직을 얻었다. 이 관직의 이름이 學士樓라는 이름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학문을 잘 하는 사람, 또는 시를 잘 지은 사람으로 최고운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셋째 신선이라는 말이 들어 간 것은 이인로가 그의 『破閑集』에서 언급한 것을 후에 사람들이 그대로 전승하고 있다. 실제로 학사루 吟詠詩에서는 儒仙·詩仙·詞仙은 많아도 神仙이라는 말이 많지 않다. 그것은 최고운이 현실세계를 등지기 이전 현직에 있을 때 머문 곳이기 때문이다. 陝川 伽倻山이나 가야산 입구에 있는 籠山亭, 또는 紅流洞을 읊은 시에서는 神仙 또는 仙이라는 글자가 대부분 들어갔다.²⁴⁾

24) 줄고, 『籠山亭 吟詠 시에 나타난 최치원 인식(Ⅰ)』, 『新羅史學報』第8集, 新羅史學會, 2006.12, pp.226-250.

이는 최고운이 현실세계에 머물렀느냐 아니면 현실세계를 떠나 탈속을 하였느냐의 차이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가야산은 그가 속세를 떠난 곳이었다.

IV. 後代人의 學士樓 活用

일반적으로 누정은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누각에 올라가서 공무를 집행하기 보다는 친한 벗들과 모여 술을 마시면서 시를 짓고 즐겼다. 후대 사람들이 이 학사루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논의하여 보기로 한다.

학사루는 최고운 당대에 이미 있었다. 咸陽 官衙 옆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의 여가에 최고운을 비롯한 후대 사람들이 이곳에 올라 휴식을 취하였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 선비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선비들이 누정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이 시 짓는 일이다. 지금까지 전하는 문집에 누정시가 없는 곳이 없다. 『韓國文集叢刊』을 보면 樓·亭·臺를 제재나 소재로 하여 읊은 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만큼 선비들이 누정에서 시를 많이 지었다. 이 학사루도 예외가 아니다. 학사루 소재 또는 제재로 하여 읊은 시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이 학사루 곁을 지난 선비들이 이를 作詩 거리로 삼아 시를 지었다. 조선 초기 유자광의 學士樓 詩板 때문에 많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戊午士禍의 발단의 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학사루에 걸린 柳子光의 詩板을 估畢齋가 떼게 한 것이었다.²⁵⁾ 후대 사람들이 학사루를 다음과 같이 활용하였다.

『籠山亭 吟詠詩에 나타난 최치원 인식(Ⅱ)』, 『韓國思想과 文化』第37輯, 韓國思想文化學會, 2007.6, pp.43-71.

『漢詩에 나타난 伽倻山의 形狀』, 『韓國思想과 文化』제68집, 韓國思想文化研究院, 2013.12.30. 참조.

1. 吟詠處로서의 學士樓

頻度數가 가장 높은 것이 이 학사루도 음영처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최고은 당시부터 고운이 이곳에 올라 시를 읊었다. 다음 그을 보면 이러한 정황을 알 수 있다.

학사루는 함양(咸陽)의 객관(客館) 서쪽에 있다. 선생이 태수(太守)로 재직할 때 그곳에 올라가 감상하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뒤에 병화(兵火)로 소실되었는데, 고을 관아를 옮길 때 누대도 옮겨 지으면서 그대로 학사루라고 일컬었다. 또 손수 심은 나무숲이 10여 리에 걸쳐 이어져 있는데, 고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서 이 일을 기록하였다.²⁵⁾

이와 비슷한 기록이 현재 함양 학사루 앞 표지판에 실려 있다. 그 내용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함양 학사루

咸陽 學士樓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90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윤림리

25) 柳子光之父爲天嶺太守, 治民之私而脅制邑吏, 以其女嫁子光, 子光乃孽產也. 吏嘆曰, 吾女之命, 卜者皆云當爲一品, 而今歸孽子, 冤莫甚矣. 不知子光終爲一品, 而厥女爲貞敬夫人也. 他日子光得志到天嶺, 題詠于學士樓. 佔畢齋見之, 詬而去其板. 子光因此含恨, 遂註吊義帝於江中賦, 譜于燕山, 蓋賦是佔畢齋所作也. 噫, 以一題詠削去之故, 而佔畢不免身後之禍, 諸賢亦遭駢首之戮, 子光可謂兇險不測之人也. 詩曰, 讒人罔極, 其此之謂歟. 高尚顏, 『泰村集』卷4, [效頌雜記]上, 「叢話」·「[柳子光之兇險]條」(『韓國文集叢刊』59, p.262).

26) “學士樓在咸陽客館西, 先生爲太守時所登賞故名. 後爲兵燹所燬, 移邑時, 樓亦移構而因名. 又有手植林木連亘十餘里, 郡人立碑而記事.” 崔致遠, 『孤雲集』, 「孤雲先生事蹟」(『輿地勝覽』).

이 누각은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 선생이 함양 태수(咸陽太守)로 있을 때 이곳에 올라 시를 자주 지었기 때문에 학사루(學士樓)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관청의 객사 자리인 현 함양초등학교 안에 있었던 것을 1979년에 현재 위치로 옮겼다. 이전 당시에 발견된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92년(숙종 18)에 중수하였다고 한다.

원래 학사루는 객사의 부속 건물로 함양 읍성(邑城)의 중심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학사루를 제외하고 객사를 비롯한 다른 부속 건물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이 누각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비교적 큰 2층 팔작지붕 건물이다. 그렇게 화려한 건물은 아니지만 누의 아래와 위, 지붕의 비례가 대단히 조화롭고 안정되어 있으므로, 조선시대 관청에서 지은 누각 건축의 전형 을 보여주고 있다. 이 건물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다.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이 함양 군수로 있을 때 이곳에 걸려 있던 유자광(柳子光, ?~1512)이 쓴 시(詩)를 철거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적인 원한으로 발전하여 1498년(연산군 4)에 일어난 무오사화(戊午士禍)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한다.²⁷⁾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최고운이 이 누각에 올라 시를 자주 지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學士樓라 하였다는 점이다. 그 뒤의 기록은 학사루의 역사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최고운이 이 누각에 올라서 지은 시 제목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가 남긴 시 가운데 天嶺郡을 제재로 하여 지은 시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문헌에 남아 있는 시 가운데 이 학사루를 제재로 하여 지은 시는 점필재 김종직의 작품이 가장 앞선다. 점필재의 「칠석에 춘당을 맞음(七夕邀春塘)²⁸⁾」이라는 시가 그것이다. 그 시의 내용을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

27) 함양 학사루 「안내문」.

28) 金宗直, 『佔畢齋詩集』卷7(『韓國文集叢刊』12, p.268).

河邊靈匹度雲車 은하수 가의 신령한 배필 운거 타고 건너,
 世上穿針術已疎 세상 사람의 바느질솜씨 너무 서툴다오.
 學士樓前月如練 학사루 앞 비친 달빛 퍼놓은 베와 같으니,
 請君來曬腹中書 그대 와서 뱃속의 책을 포쇄(暴曬)하게나.

역시 점필재 김종직의 『학사루의 못가에 철쭉꽃이 활짝 피(學士樓池上躑躅盡開)²⁹⁾』이라는 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閑搜老物小園中 작은 동산에서 한가히 노물을 탐색하며
 徙倚幽欄曲沼東 굽은 못 동쪽에서 그윽한 난간 기대있노니
 千柄芙蕖俱已倒 천 줄기 연들은 이미 모두 사그라졌는데
 兩株躑躅忽能紅 두 그루 철쭉꽃은 갑자기 붉게 피었네
 似從黃菊爭時令 마치 국화를 따라서 절기를 다투는 듯 하나
 可怕青姨弄化工 서리 귀신이 조화를 희롱할까 두려웁구려
 聞說神京更融煖 들으니 서울에는 일기가 다시 다스워져서
 桃梨櫻杏幻春風 복숭아 배 앵두 살구가 춘풍에 변환했다네

점필재보다 11년 먼저 태어난 四佳 徐居正(1420~1488)의 시에 학사루라는 말이 들어가는 작품이 있다. 『함양 군수 조위의 시에 차운함(次曹咸陽偉)³⁰⁾』이라는 시 6 수 가운데 네 번째 시가 그것이다. 그 내용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頭流山聳萬丈餘 두류산은 만 길도 넘게 우뚝 솟아 있고,
 學士樓前竹影疎 학사루 앞에는 대나무 그늘이 듬성한데.
 盡日訟庭清似水 온종일 송사하는 곳은 물처럼 맑으니,

29) 金宗直, 『佔畢齋詩集』卷8(『韓國文集叢刊』12, p.270).

30) 徐居正, 『四佳詩集』卷51.

吟詩纔罷又看書 시 읊기를 다하자마자 또 책을 보겠지.

1484년 梅溪 曹偉가 31살 되던 해 8월 함양군수로 왔다. 그가 사람을 다스림에는 어짊과 용서,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근본으로 하였고, 학교를 세워 인재를 기르는 것을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여겼다.³¹⁾ 위 시에서 보면 자아가 조매계의 생활을 잘 묘사하고 있다. 낮에는 公務에 힘을 쏟는다. 곧 백성들 사이에 訟事가 생기면 이를 잘 처리하여 불만이 없게 한다. 이것이 매계의 진면목이 아니다. 자아가 보기에 梅溪가 틈나면 시를 짓고 책을 읽는다. 그만큼 매계가 학문 또는 문학을 좋아하였다는 말이다. 실제로 매계가 지은 시나 문장은 대단히 빼어났다. 매계는 점필재 제자 가운데 文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어서 錦溪 黃俊良이 1545년(인종1) 4월에, 『두류산을 유람한 기행시(遊頭流山紀行篇)³²⁾』 354구를 지었다. 그 가운데 25, 26구에서 다음가 같이 읊고 있다.

學士樓中弔詩魂 학사루 안에서 시인의 넋을 애도하고,
嚴川路上橫孤筇 엄천사로 가는 길 지팡이 비껴들었네.

위 시의 原註에, “최고운(崔孤雲)과 김계온(金季溫), 조태허(曹太虛)가 모두 천령 수령(天嶺守令)을 지냈고, 그곳에 학사루(學士樓)가 있다.”³³⁾ 한다. 季溫은 김종직, 太虛는 曹偉(1454~1503)의 字이다. 따라서 최고운, 점필재, 조위가 이 고을 태수를 지냈다. 또 이들은 시로 유명하였다. 자아

31) “成化二十年 我成宗大王十五年 甲辰, 公三十一歲. 八月, 乞郡, 拜咸陽郡守. 其治以仁慈簡儉爲本, 以興學育才爲務.” 曹偉, 『梅溪集』, 『年譜』.

32) 黃俊良, 『錦溪集 外集』卷1.

33) “崔孤雲, 金季溫, 曹太虛, 皆守天嶺. 有學士樓.” 黃俊良, 위와 같은 곳.

가 이들의 녀을 위로하러 한다.

여느 樓·亭·臺와 마찬가지로 학사루도 吟詠處로 활용되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함양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 학사루 또는 그 주변의 경관을 읊었다. 그 음영시인들이 고려시대에는 없고, 조선 시대 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빠른 사람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別洞 尹祥이다. 그의 뒤를 이어 四佳 徐居正, 佔畢齋 金宗直, 그리고 함양 출신이거나 함양을 거쳐 간 점필재의 제자들 순이다. 우리가 주목할 일은 徐四佳이다. 한문학사에서 서사가와 점필재는 서로 대칭되는 인물로 간주하여 왔다. 한 사람은 館閣文人, 또 한 사람은 士林派 문인의 대표로 여겨왔다. 그런데 왜 서사가가 조매계에게 시를 지어 주었을까? 이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성종 때부터 점필재 제자들, 곧 사림과 문인들이 官界에 많이 진출하였다. 이 때 貢擧 또는 知貢擧로 과거시험을 관장하였던 사람이 바로 徐四佳이다. 따라서 梅溪 曹偉가 함양 군수로 나갔을 때 서사가가 그에게 시를 지어 주었다. 서사가와 조매계가 座主와 門生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였다.

학사루에서는 다른 樓閣의 효용과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酬唱하거나 講學하는 공간으로서의 누각의 기능은 여느 누각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곳에서 공무를 보거나 기숙하려한 것은 이 학사루 외에 다른 누각에서는 그다지 행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밀양에 있는 영남루에서는 점필재와 그의 제자들이 술을 마시면서 酬唱하고 유흥을 즐긴 일이 있다. 그러나 학사루에서는 술을 마시면서 기생을 불러 노닌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학사루가 官衙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江이나 내[川] 곁에 누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청 옆에 이 학사루가 있었다. 곧, 학사루가 准官衙였다. 따라서 그곳에서 飲酒나 歌舞는 할 수가 없었다. 둘째 崔孤雲이 직접 그곳에 올라가서 시를 짓고 휴식하였기 때문이

다. 그가 이 함양에서 善政을 베풀었다. 그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 함양이다. 다른 곳은 대부분 후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지만, 최고운이 직접 조성한 上林이 아직도 남아 있다. 최고운을 推仰하는 후대 사람들이 이곳에서 시를 지어 시인 자신의 회포를 묘사한 것이 당연하다.

2. 講學處로서의 學士樓

학사루가 학문을 講論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 고을 출신인 뇌계 유호인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뇌계(濡溪) 유호인(兪好仁)은 천성이 순후(醇厚)하고 문장이 풍부하여, 성묘가 가장 중하게 여겼다. 공이 집현전 교리로 있을 적에 부모를 편하게 봉양할 뜻으로 고을살이를 청해서 함양(咸陽) 수령으로 나갔다. 공이 학문을 강론(講論)하는 데에는 밝았으나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는 서툴렀다. 여러 학생과 학사루(學士樓)에 올라 날마다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토론하였다. … (중략)…상고하건대, 뇌계는 함양 사람인데, 어찌 본 고을에 수령으로 나왔겠는가? 일찍이 들으니, 합천(陝川) 수령으로 있다가 죽었다고 한다. 이것은 기록하는 사람이 잘못 기록한 것일 것이다.³⁴⁾

뇌계 유호인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咸陽 출신이다. 그가 成宗 때 관직에 나가 중앙에서 근무하다가 어머니 봉양을 위하여 고향으로 보내줄 것을 임금에게 자청하였다.³⁵⁾ 이 말은 들은 임금이 그를 합천군수로 임명

34) 李璽, 『松窩雜說』.

35) 이 때 성종(成宗, 1451~1494)이 뇌계에게 지어 준 시조가 있다.

이시럼 부디 갈파 아니 가든 못할쏘냐

무단이 슬터냐 남의 말을 들었느냐

하였다. 그러나 그가 함천군수로 부임한지 한 달 만에 죽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자신의 학사루에서 고향인 함양에서, 또 먼 옛날 이곳 수령이었던 최고운이 노닐던 곳에서 학생들과 경서와 사서를 강론하였다. 이는 그만큼 그의 머릿속에 學士라는 단어가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학사는 물론 관직명이다. 그러나 다른 관직과는 달리 책을 가까이 하는 관리이다. 그가 학사루에 올라 글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가 서울에서 근무할 때에도 弘文館 등 學問과 교육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었다. 실제로 그가 언제나 책을 가까이하였다.³⁶⁾

潘溪보다 뒤에 태어나 관직생활을 한 東谿 趙龜命(1693~1737)의 「신진보사진에게 답한 편지(答申進甫思晉書)」에서 자신의 포부를 기술하고 있다.

학사루는 고운의 유적이다. 관아 곁에 지은 것이 비록 달리 불만한 것은 없지만 시끄러운 세속의 소리를 조금 멀리 할 수 있어서이다. 그 뒤에는 푸른 대나무가 뽕뽕이 들어서 있어 그윽한 흥치를 자아낸다. 매번 그곳에 갈 때마다 이곳에서 그대들과 같이 글을 읽고 회포를 풀고 싶었다.³⁷⁾

뇌계가 학사루에서 강학을 실천하였다면, 東谿가 이를 실천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편지 내용을 보면, 그가 학사루에서 벗들과 글을 읽고 강론하고 싶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동계도 역시 學士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그러도 하 애도래라 가는 뜻을 널리라 (金興圭 外, 古時調大全,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院, 2012. 7. 4109.1)

36) 俞好仁, 『潘溪集』, 「序文」參照.

37) “學士樓者, 孤雲遺迹, 而傍衙舍而構者, 雖無異觀, 稍遠喧囂. 其後翠竹千竿, 蕭然有幽趣. 每臨之, 輒思與進甫輩讀書談懷於此也.” 趙龜命, 『東谿集』卷10, 「答申進甫思晉書」甲辰(『韓國文集叢刊』215, p.209).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최고운을 마음속으로 추종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학사루의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강학하기에 적합하였다. 특히 함양에서 태어나 최고운을 마음속으로 추종한 뇌계 유희인에게는 넓은 공간의 편리성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 고을을 다스렸던 최고운의 흔적이 담긴 곳에서 그가 강학하는 것이 대단히 의의가 있었기에 그리하였다. 그의 시 가운데 함양이나 가야산을 소재로 지은 작품에는 최고운을 追崇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3. 公務處로서의 學士樓

임진왜란 당시 관군과 의병들이 이곳에서 倡義文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鈞隱 韓夢參(1589~1662)이 지은 大笑軒 趙宗道(1537~1597)의 『行狀』을 보면 그러한 정황을 알 수 있다. “마침 함양에서 초유사 학봉 김성일을 만나 학사루 위에서 격문을 지었다. 군현을 드나들며 사기를 진작시켰다. 뒤에 적들에 대항하는 장본(張本)은 모두 선생의 힘이였다.”³⁸⁾ 鈞隱이나 大笑軒은 모두 경남 咸安 출신이다. 慶南 宜寧 출신인 松庵 李魯(1544~1598)의 글에서 그 정황을 알 수 있다.

공이 평생토록 간직하였던 충의를 천하 후세에 드러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이 쪼개지고 뼈가 떨리었다. 아, 애통하고 애통하다. 나 이노(李魯)는 참으로 어떠한 사람이기에 공과 함께 한 시대에 나란히 태어나서 일찍이 젊어서는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였고, 늙어

38) “適遇招諭使金鶴峯於咸陽, 喜卽與草檄於學士樓上. 出入郡縣, 奮倡士氣. 他日抗賊張本, 皆先生力也.” 韓夢參, 『大笑軒先生逸稿』卷2, [附錄], 『行狀』(『韓國文集叢刊』47, p.423).

서는 송백(松柏)처럼 변치 않는 우의를 맺었는가? 학사루(學士樓) 위에서 함께 초유문(招諭文)을 지었고, 환아정(換鵝亭) 가에서 소모장(召募將)의 절부(節符)를 나누었다네.³⁹⁾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 때는 招諭使인 鶴峯 金誠一(1538~1593)과 의병들이 이곳에서 招諭文을 짓기도 하였다. 당시 의병들이 모여 항전한 곳이 진주, 초계, 함양, 산청 등지였다. 함양은 학봉 김성일과 송암 이로가 힘을 합쳐 창의한 곳이다. 학사루에서 그들이 초유문을 지은 것은 이 누각이 咸陽 客館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학사루는 개인이 지은 누각이 아니라 관청에서 지은 누각이다. 최고의 시대에 이미 이 누각이 있었다. 1308년과 임진왜란 때 불 탄 것을 咸陽 官衙에서 重建하였다. 이 학사루가 관청과 주민이 소통하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었다. 따라서 이곳에서 공무를 수행한 것은 수월성을 위해서였다.

4. 避難處로서의 學士樓

학사루의 다른 효용은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홍수가 났을 때 이곳에 올라가 홍수를 피하였다. 閔仁伯의 다음 글을 보면 그러한 정황을 알 수 있다.

함양은 두류산의 기슭에 있다. 언제나 시냇물이 흘러내려 모두 완상할만하다. 객관의 학사루가 바로 두류산의 청왕봉과 마주하고 있다. 누각의 이름은 최고은 때문에 붙여졌다. 고을의 서쪽 강문(江門)에 예부터 뇌계가 있었는데

39) “其平生忠義之大節，幾不得暴白於天下後世矣。言念及此，不覺心折而骨驚，嗚呼痛哉。魯誠何人。生并一時，夙攀蓮籍之聯翩，晚契松盟之膠漆。學士樓上，共草招諭之文。換鵝亭畔，分佩召募之符。” 金誠一，『鶴峯集』，[附錄]卷4，「祭文(李魯)」(『韓國文集叢刊』48, pp.364-365).

물살이 대단히 세어서 큰 돌을 쌓아 제방을 만들어 물이 넘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간혹 여름 장마철에는 제방이 넘쳐 관사(官舍)에까지 물이 들어왔다. 그래서 고을 수령이 가족들을 데리고 학사루에서 홍수를 피하였다고 한다.⁴⁰⁾

학사루가 頭流山, 곧 智異山과 마주하고 있다. 함양 서쪽에는 湍溪가 흐른다. 이 너계가 물살이 세어 큰 돌을 쌓아 제방을 만들었으나 장마철 냇물이 제방을 넘는 경우가 있었다. 민인백이 군수를 맡아 이 고을을 다스렸을 때 홍수가 났다. 그가 학사루에 올라가서 홍수를 피하였다. 樓는 2층이다. 1층은 閣이다. 누와 각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붙어 있다. 같은 건물에 1층과 2층으로 나눌 뿐이다. 학사루가 2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시냇물이 넘쳐도 이 누에 올라가면 안전하였다. 官衙가 단층으로 되어 있지만 樓가 2층으로 되어 있고, 또 이 누각이 官衙와 가까이 있었기에 豪雨期에 피난하기 편리하였다.

실제로 누각을 피난처로 활용한 예가 거의 없다. 이 학사루가 피난처로 활용된 것은 함양 주변의 地形의 특성 때문이다. 함양은 주변이 지리산과 그 자락으로 둘러 싸여 있다. 산이 높고도 깊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물이 많아 질 수밖에 없다. 큰 강이면 그 물을 모두 용납할 수 있지만 湍溪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물이 넘칠 수밖에 없었다. 냇물이 넘치니 주위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 넘친 물을 피하였다. 여름 장마철 홍수가 났을 때 피난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이 학사루였다.

40) “咸陽, 寔頭流之麓也. 尋常溪壑, 皆可賞玩. 客館之學士樓, 正對頭流之天王峯. 樓之得名, 以崔孤雲也. 郡西江門, 古有湍溪. 水勢甚壯, 疊大石爲堤, 以防汎溢, 而或值夏澇, 則溢入官舍. 故主倖有時率家屬, 避水於學士樓云.” 閔仁伯, 『苔泉集』卷5, [遊賞], 『咸陽學士樓』(『韓國文集叢刊』59, p.93).

5. 寄宿處로서의 學士樓

숙종과 영조 때의 문신으로 慶尙道觀察使를 역임하고 領議政(1750)까지 오른 歸鹿 趙顯命(1690~1752)의 『석여에게 준 편지(與錫汝書)⁴¹⁾』(癸卯, 1723)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학사루에 방이 있다고 하는데, 항상 거처할 수 있는가? 죽림 한 본은 대략 얼마인가? 구전문사(求田問舍)⁴²⁾하러 가서 며칠을 묵다가 돌아와서 몇 군데를 차지하였다. 산대라고 하는 것은 죽산 경내에 있는데 산이 서쪽에서 뻗쳐 나와 남쪽으로 비스듬히 내려와서 앞으로 큰 들판을 감싸고 큰 내를 거슬러 서쪽으로 뻗어가다가 멈춘다.⁴³⁾

歸鹿 趙顯命이 실제로 학사루에서 생활한 것은 아니다. 그가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자신의 아우인 東谿 趙龜命(1693~1737) 편지로 물어 보았다. 이 편지를 보낸 계절이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도 歸鹿이 자신의 아우에게 기숙하려고 한 것은 겨울이 아니라 여름일 것이다. 여름철에 이 누각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누각이 민가 곁에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樓가 2층으로 되어 있고 1층은 비어 있으며 대부분 木材로 구성되었기에 여름에는 통풍이 잘되어 대단히 시원하다. 겨울에는 추워서 지내기 곤란하지만 더운 여름에는 이곳이 생활하기에는 대단히 편리한 공간이었다. 이 학사루가 관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여름철에 그곳에서 생활

41) 趙顯命, 『歸鹿集』13(『韓國文集叢刊』212, p.470).

42) 求田問舍: 원대한 뜻을 버리고 집안일만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삼국 시대 劉備가 “세상을 구할 뜻은 없이 시골에 내려가 집안일 돌볼 생각만 할 뿐[求田問舍]”이라고 許汜를 조롱한 고사가 있다.(『三國志·魏志』, 『陳登傳』).

43) “所謂學士樓有房室, 可常處否. 竹林一本之大約幾許. 問舍之行, 數宿即還, 而占得數處. 所謂山臺, 在竹山境. 山出自西, 迤南而來. 前抱大野, 逆大川面西而止.”

하기에 더욱 수월하였다. 그곳에서 宿食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고운이 이 함양에 온 것이 그의 나이 41살 때이다. 그가 이곳에 있을 때는 관리의 신분이었다. 이 학사루 또한 관청에 딸린 누각이었다. 이 누각은 개인이 지은 것이 아니었다. 조선 시대 관리들이 이 학사루에 올라 시를 읊기도 하고, 책을 펴서 강학하기도 하였다. 또 임진왜란 때에는 이곳에서 관군과 의병이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하여 招諭文을 짓기도 하였다. 홍수 때는 이 곳에 올라가 홍수를 피하기도 하였고, 여름철에는 이곳에서 기숙하려고도 하였다. 이처럼 이 학사루는 다른 누각과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하였지만, 학사루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특수하게 쓰이기도 하였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慶尙南道 咸陽郡 雲林里에 위치하고 있는 學士樓의 吟詠詩에 나타난 최고운의 모습과 이 학사루의 후대 활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운림리는 최고운이 조성한 숲이라는 의미이다. ‘雲’은 ‘崔孤雲’의 雲자를, 林은 大館林 또는 上林의 ‘林’자에서 따왔다. 이 학사루에 대한 음영시가 아주 많지는 않다. 학사루를 제재나 소재로 하여 지은 시인들은 함양에서 관리를 하였거나 함양 수령으로 가는 동료를 전별하거나, 그곳에서 의병활동을 한 사람이었다. 이들 시인들은 함양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학사루 음영시가 다른 누정의 음영시에 비하여 그 작품 수가 많지 않다. 그것은 함양이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시 작품 수를 보면, 시의 제목에 ‘학사루’라는 말이 들어간 시가 『韓國文集叢刊』에 18제 24수, 『咸陽樓亭誌』에 6제 6수가 실려 전한다. 시의 내용에 학사 또는 학사루라는 말이 들어간 시가 6題 7首, 學士라는 말이 들어

간 시가 1題 1首이다. 김종직의 「學士樓下梅花始開病中吟得」 2수 가운데 첫 번째 시에는 제목과 내용 모두 학사루라는 말이 들어갔다.

시에 나타난 최고운의 모습은, 첫째 학자로서의 최고운이다. 그가 文翰을 담당하는 한림학사의 직책을 역임하였기에 후대 사람들이 그를 追頌하여 최고운이 학자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 儒仙으로서의 최고운이다. 그가 중국에서 귀국할 때 顧雲이 그에게 「儒仙歌」를 지어 주었다. 이를 상기하여 최고운을 유선으로 불렀다. 셋째 詩仙 또는 詞仙으로서의 최고운이다. 최고운이 선비이면서 시를 잘 지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불렀다. 이는 당나라 李伯을 詩仙이라 하는 것과 그 성격이 같다. 넷째 神仙으로서의 최고운이다. 고려 시대 이인로가 그의 『파한집』에서 최고운이 신선이 되어 구름타고 갔다는 말을 상기하여 후대 시인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다. 점필재 김종직의 시에 나타난다. 이는 점필재가 超人文精神 세계에서 최고운을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이인로가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냥 따라 불렀다.

後代人의 學士樓 活用은, 첫째 吟詠處로서의 학사루이다. 학사루가 官衙 곁에 있어 准官衙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그곳에서 飲酒나 歌舞를 할 수가 없었다. 최고운이 직접 그곳에 올라가서 시를 짓고 휴식을 취하였다. 최고운을 推仰하는 후대 사람들이 이곳에서 시를 지어 시인 자신의 회포를 묘사하였다. 둘째 講學處로서의 학사루이다. 학사루의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강학하기에 적합하였다. 특히 함양에서 태어나 최고운을 마음속으로 추종한 뇌계 유호인에게는 넓은 공간의 편리성 때문만이 아니라 이 고을을 다스렸던 최고운의 흔적이 담긴 곳에서 강학하는 것이 대단히 의의가 있었다. 셋째 公務處로서의 학사루이다. 임진왜란 때 관군과 의병이 招諭文을 작성할 때 이곳이 활용되었다. 그것은 이 누각이 관아 옆에 있어 이곳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수월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寄宿處로서의 학

사루이다.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寄宿하려 한 것은 그만큼 학사루의 공간이 기숙하기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추워서 지내기 곤란하지만 더운 여름에는 이곳이 시원하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대단히 편리한 공간이었다. 다섯째 避難處로서의 학사루이다. 학사루가 2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홍수를 피하기에 적합하였다.

이상으로 본고를 마치기로 한다. 본고에서 미진한 부분은 이 다음에 보완할 것을 약속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金誠一, 『鶴峯集』(『韓國文集叢刊』48)
 金宗直, 『佔畢齋詩集』(『韓國文集叢刊』12)
 閔仁伯, 『苔泉集』(『韓國文集叢刊』59)
 朴趾源, 『燕巖集』(『韓國文集叢刊』252)
 徐居正, 『四佳詩集』
 申佐模, 『澹人集』(『韓國文集叢刊』309)
 吳 翹, 『天坡集』(『韓國文集叢刊』95)
 俞好仁, 『湍谿集』(『韓國文集叢刊』15)
 尹根壽, 『月汀集』(『韓國文集叢刊』47)
 尹 祥, 『別洞集』(『韓國文集叢刊』8)
 李奎報, 『東國李相國集』(『韓國文集叢刊』1)
 李 璽, 『松窩雜說』
 趙顯命, 『歸鹿集』(『韓國文集叢刊』212)
 崔致遠, 『孤雲集』
 韓夢參, 『大笑軒逸稿』(『韓國文集叢刊』47)
 咸陽文化院, 『咸陽樓亭誌』, 大邱: 大寶社, 2001. 10.

2. 논문 및 단행본

- 김윤수, 「함양 학사루에서 일어난 사건」, 『선비문화』13, 경상대 남명학연구원, 2008.
pp.126-133.
- 명남재, 「함양상림과 학사루」, 『하천과문화』9권4호, 인간과 하천4, 2013. pp.44-50.
- 李九義, 「籠山亭吟詠詩에 나타난 崔致遠 認識(Ⅰ)」, 『新羅史學報』8, 新羅史學會,
2006.12.
- , 「籠山亭吟詠詩에 나타난 崔致遠 認識(Ⅱ)」, 『韓國思想과 文化』37, 韓國思
想文化學會, 2007.6.
- , 「漢詩에 나타난 伽倻山の 形狀」, 『韓國思想과 文化』68, 韓國思想文化學會,
2013.12.
- 정순희, 「不遇와 고뇌, 떠남의 현재성-朴趾源의 「咸陽學士樓記」읽기」, 『韓國言語文
學』96, 韓國言語文學會, 2016, pp.123-142.

Abstract

A Cognition of *Choi Gwoon* appears on poems of the pavilion of *Haksaroo*

Lee, Ku-eui

This treatise examines composers appraisal of *Choi Gwoon* by studying the recited poetries of pavilion of *Haksaroo*.

The recited poetries of pavilion of Haksaroo are not so much. Because of this pavilion was around the mountain of *JiRi*, so it's lack of traffic facilities. The poetries of reciting of this pavilion which left these days are only 30 pieces.

In these poetries, the aspect of *Choi Gwoon* of those specific characters are shown. First, *Choi Gwoon* who as a classical scholar. After he returned his country Silla, he engaged in a government official of institute so the posterities call him as this.

Second, *Choi Gwoon* who as classical scholar of supernatural being. When he return to his country from China his friend *GoWoon*(顧雲) gave him the song of supernatural being, so it's handed down to posterity.

Third, *Choi Gwoon* who as the poet of supernatural being. he was a classical scholar and great poet, so the posterities call him as this.

Fourth, *Choi Gwoon* who as the supernatural being. Lee InRo a classical scholar who lived in *Coree* dynasty described *Choi Gwoon* as supernatural being at the 『*Pahanjip*』 by *Lee InRo*, so it's handed down to posterity.

The aspect of *HakSaRoo* which application of the posterities are several points. First, as the spot of reciting. It's built in *Silla Dynasty*. Sometimes *Choi Gwoon* climbed there, he had recited poems. So it's recognized as that. Second, as the spot of pursuit of study. It's commodious space so that was suitable to pursuit of study. Third, as the spot of official duties. It's located near by government and public offices, so it's easy to carry out official duties.

Fourth, as the spot of boarding or life space. Last, as the spot of refuge. It's organized two stories, so it's convenient for a shelter from an inundation.

Key Word : *Choi Gowoon*, *HakSaRoo*(the pavilion of classical scholar), *Hamyang*,
A scholar, Reciting, Application, Reverence.

이구의

소속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kelee08@knu.ac.kr

이 논문은 2016년 10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12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
